

# 사람 자체가 마귀에게 갇혀 있는 하나님

###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사람마다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은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행복을 누리본 경험이 없으면 그러한 행복을 동경도 하지 않고 생각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지, 저절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의 작용이 마음 작용인 고로 핏속에 행복을 누리본 피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동경하고 행복을 누리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누렸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피가 그들의 자손인 사람 속에 있는 고로 사람마다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본 경험이 있는 조상의 피가 우리 후손들 속에 있는 고로 그런 것입니다.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 고통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행복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영원무궁토록 행복을 누리며 아담과 해와의 피가 그 후손인 사람들 속에 흘러 내려온 고로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동경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타고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며,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5000년 전 사람이나 6000년 전 사람도 역시 영원무궁토록 살기를 희망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6000년 전 인간의 조상인 하나님이 죽음의 영인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구세주를, 불교에서는 생미륵불을, 유교에서는 정도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도령이 나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 고로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 속에서는 구세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도, 이사야 60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서에도 에덴동산을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한다고 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사람 속에서 구세주가 나와야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 오신다고 한 말씀이 성경 구절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확실한 거죠?

###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을 다시 환원해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 속에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사람의 주체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고로 주체영인 마귀를 죽여서 없애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영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므로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영이 이긴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어야 승리의 영이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들 속에 있는 선악과가 되는 영인 ‘나라는 의식을 죽여 버리고 승리한 하나님의 영이 나라



구세주 조희성님

는 의식이 될 때에 승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승리의 하나님이 되니까 구세주가 되는 거죠? 구세주야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보통 하나님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도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갇혀 있는 상태인 고로 마귀를 이긴 승리자 구세주야야 마귀를 전부 죽여서 없애 버리고 갇혀 있던 하나님을 석방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마귀에게 갇혀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에 쓰여 있는데, 시편 82편 6절에는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쓰여 있고, 신명기서 14장 1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와 자녀라라고 쓰여 있고, 요한1서 3장 2절에는 ‘지금도 너희가 여호와와

자녀나라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자식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마귀의 포로가 된 하나님인 고로 마귀의 포로가 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바른 표현이예요? 잘못된 표현이죠? 아무리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해도 본신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마귀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마귀 울타리를 부수고,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마귀가 좌절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좌절할 때에 하나님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된다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

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이제그대로 주체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이죠? 주체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할 수가 없죠? 또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고로 하나님 되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쓰여 있죠?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산다는 말인데, 성경 말은 영적 말이라고 쓰여 있는 고로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마귀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마귀 옥에서 석방되어 나오면, 마귀 옥이 되는 영적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았다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다시 살지도 않은 예수가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84세까지 살다가 죽은 예수의 무덤이 지금 불탄서 있었죠? 그런데 4월달만 되면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모든 인생들을 속이는 속임수의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들의 이야기대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면 가끔은 나타나야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 양심이 내가 될 때 부활함을 입었다가 됨

성경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고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쓰여 있는 고로 마음의 부활을 논한 것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마귀의 마음도 있는데, ‘나라는 주체영의 마귀의 마음이고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양심이 ‘나라는 주체영의 마귀에게 부

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에 갇혀 있다는 것은 마치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고로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영적 무덤이 되는 마귀를 죽여 버리니까 영적 무덤이 부서지는 거죠? 이렇게 영적 무덤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소리인 거죠?

성경말씀을 더듬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부 영적으로 보면 해석이 되지만 육적으로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한 두어 장만 읽으면 하품이 나고 졸음이 몰려와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골치가 아픈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골치 아픈 것을 참고 성경을 수천 번 읽었던 고로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머릿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40년 전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 지구 땅 위에 이 사람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경에 대해 자신이 있었던 고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가 됐든 기독교 불교 대표와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토론하게 되면 병어리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아주 쉬운 질문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물어보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예수를 믿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쓰여 있죠?

4면 상단에 계속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 《9장 사사시대》

## 7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손 이야기 ①

삼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사이며 또한 단지파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수다. 삼손은 히브리어로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인데, 앞으로 삼손이 숙한 단지파 후손 가운데에서 온 우주를 비추는 ‘큰 태양’과 같은 구세주가 출현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士師)로 알려져 왔다. 사사기 3장에서 12장까지는 연대기순으로 사사 율리엘을 시작으로 하여 사사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도라, 아이 등 7명의 사사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사 삼손의 활약상을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아니라 세 번째 사사이다. 그러므로 성경 사사기에 세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삼갈도 나오지만, 삼갈은

삼손의 예명으로 볼 수 있거나 삼손과 동시대에 살았던 괴력을 갖춘 정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일부 사본들에서는 삼갈의 이야기가 에훗(80년 동안 통치한 두 번째 사사) 다음이 아닌 삼손의 다음에 배치되어 있다. 삼갈이 사사의 신분으로 있을 때,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마치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주워서 쥐고 무기로 삼아 블레셋 사람 일천 명을 혼자서 쳐서 죽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데, 맥락을 볼 때 삼갈의 이야기가 원래 삼손의 이야기 직후에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반면 유대교에서는 삼갈을 이스라엘 민족의 정당한 지배자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한 외국인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은 그 이름에서 기인한다. 히타이트 카르케미시의 왕들 중 한명인 상가라와 삼갈이라는 이름이 비슷하고, 아낏의 아들은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하던 여신인 아나트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고귀한 혈통을 나타내는 일반적 표현이라는 것이 그 주장이다. 실제로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벳다나, 아낏의 어원도 아나트로 보기도 한다. - [참조 <https://namu.wiki/w/삼갈>]

였다는 이야기와 같이 대비되는 점도 어쩌면 삼갈과 삼손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가능성을 더 짚어 준다.

더구나 사사기 5장 6절은 삼갈과 삼손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sup>2</sup>(BC 1229-1180년 통치) 이전의 사사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는데, 나중에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벌레와 꿀이 나왔다는 사사기 내용은, 꿀벌이 히브리어로 ‘드보라’이기에 삼손 다음에 사사(士師)로 여신지가 ‘드보라’가 나올 것이라는 예고를

2 대부분의 학자들은 드보라 이야기의 배경을 후기 청동기 붕괴기로 보고 있다. 드보라의 적으로 언급되는 시스라는 셈어 이름이 아니며, 드보라의 노래는 600명의 블레셋인들을 죽인 것으로 알려진 사사 삼갈을 기록하는데, 이는 드보라의 이야기가 블레셋인들을 포함한 그리스 계통의 해상 민족들이 가나안을 침공하던 후기 청동기 붕괴기에 부활함을 보여준다. 루카스 니시올로스키-스파노와 같은 현대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드보라의 노래가 해상 민족과 후기 청동기 붕괴기에 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하솔은 이 시기인 기원전 12세기에 대규모 화재와 파괴를 경험했다.

암시하는 듯하다.

삼손이 무기로 삼은 (나귀의 새 턱뼈)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나귀의 새 턱뼈)란 죽은 지 얼마 안된 당나귀의 턱뼈라는 것이다. 이는 가나안을 비롯하여 지중해 연안국에서 유래없는 기물<sup>3</sup>이

3 로버트 드루스(Robert Drews)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를 “서로마 제국의 멸망보다도 처참했던, 고대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묘사했다. 그만큼 기원전 15세기에서 기원전 13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이집트를 포함한 지중해 동부, 에게해, 중동 지역에서는 청동기 문명이 번창했다. 이집트·미노아·메케네·히타이트·앗시리아·바빌론·키프로스 등이 이 청동기시대 후기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들은 활발한 무역, 문화교류 등으로 현대사회처럼 글로벌화를 이룩하며 발전했다. 그런데 기원전 1200년경에서 1150년 사이, 궁전과 도시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무역로가 끊기며, 굶주린 사람들이 집단 이동을 하는 등 융성하던 문화는 붕괴한다. 문명의 몰락 이유를 밝히는 것은 수십년 전부터 학계의 관심사였지만, 여러 학설이 있을 뿐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청동기 시대의 붕괴를 하나의 요인보다는 기후의 변화로 인한 가뭄과 기근, 지진, 그리고 이로 인한 반란, 대규모

라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단지파의 선이주, 해양민족의 침략 등 복합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리스 카펜터(Rhys Carpenter)가 1965년에 “청동기 시대는 재앙적인 기물(기물)로 끝났다”고 주장을 한 이후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지속된 기물이 최소한 BC13세기 말에서 BC12세기 초의 에게해, 아나톨리아, 동부 지중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한다. 논쟁 중이기는 하지만, 이 기물이 결국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를 초래했고 암흑기(Dark Age)를 시작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 청동기 시대 붕괴기(1206-1150 BC)의 고대 근동과 고대 그리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후기\\_청동기\\_시대의\\_붕괴](https://ko.wikipedia.org/wiki/후기_청동기_시대의_붕괴)

1 다른 사사(판관)들과 달리 삼갈의 이야기는 서두나 결론, 평화를 유지한 기간 등이 서술되어 있지 않고, 아주 짧게 그 행적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오래된 일부 사본들에서는 삼갈의 이야기가 에훗 다음이 아닌 삼손의